

다산 정약용의 유람 및 기행에 나타난 풍류와 그 의미

- 記文과 紀行詩를 중심으로 -

김종구*

|| 차례 ||

- I. 서론
- II. 舞沂之風를 통한 樂道
- III. 유람 및 기행을 통한 은일지향
- IV. 緊酬酢와 閒酬酢의 습합
- V. 서정의 시적형상화와 현실인식 및 비판
- VI.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茶山 丁若鏞(1762-1836)의 유람 및 기행에 나타난 풍류와 그 의미를 記文과 紀行詩를 통해 고찰하였다. 茶山은 실학을 집대성한 실학자이며 조선 후기 문단을 대표하는 詩人이다. 茶山은 정치·경제·지리·문학·철학·의학·교육학·군사학·자연과학 등 깊고 넓은 학문세계를 이룩하여 茶山學을 형성하였다.

茶山學을 형성한 것은 풍류 중 緊酬酢에 가깝다. 茶山の 閒酬酢은 과연 어떠한가를 의문을 가질 수 있다. 茶山の 풍류, 閒酬酢은 樓亭·臺·서원·사찰·船遊·逍遙·詩會·遊山·宴會 등의 다양한 형태의 유람 및 기행 문화를 형성하였다.

茶山の 記文과 紀行詩에 나타난 풍류는 첫째, 舞雩와 沂水의 풍류를 통해 道를 즐기고 있었다. 둘째, 유람과 기행을 통해 隱逸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셋째, 긴장된 緊酬酢과 이완된 閒酬酢의 습합이 이뤄지고 있었다. 넷째, 서정의 시적형상화와 현실인식 및 비판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이 이뤄지고 있었다.

주제어: 다산 정약옹, 풍류, 記文 및 紀行詩, 樂道, 隱逸, 閒酬酢, 시적형상화

I. 서론

茶山 丁若鏞(1762-1836)은 실학을 집대성한 실학자이며 조선 후기 문단을 대표하는 詩人이다. 『經世遺表』·『牧民心書』·『欽欽新書』 등 5백여 권의 방대한 저술을 통해 茶山學을 형성하였다. 그 분야는 정치·경제·지리·문학·철학·의학·교육학·군사학·자연과학 등 모든 학문에 걸쳐 있으며 깊고 넓은 학문세계를 오늘날까지 영위하고 있다.

茶山學을 형성한 것은 풍류¹⁾ 중 緊酬酢에 가깝다. 茶山の 閒酬酢은 과연 어떠한가를 의문을 가질 수 있다. 茶山の 풍류, 閒酬酢은 樓亭·臺·서원·사찰·船遊·逍遙·詩會·遊山·宴會 등의 다양한 형태로 유람 및 기행 문화²⁾를 형성하였다.

1) 일반적으로 풍류는 진수작과 한수작의 풍류를 함께 사용하는 의미이다. 본고는 한수작의 풍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진수작의 풍류도 함께 분석할 것이다. 풍류에 관한 논의 즉, 진수작과 한수작에 관한 논의는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퇴계학논집』 1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 pp.177-217.)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본고의 유람 및 기행은 가까운 곳을 이동한 것이나, 멀리 여행을 염두하고 이동한 모든 것을 망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예를 들어 문집의 시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을 통해서도 유람과 기행의 요소를 찾아 아래의 목록에 제시했다. 본고는 다산의 유람과 기행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이다. 행위는 신문화사의 구조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오늘날 실행되고 있는 문화사 가운데 가장 지배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피터 버크 지음·조한욱 옮김, 『문화사란 무엇인가』, 길, 2005, pp.91-107 참조.) 그 행위를 살펴봄으로써 풍류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茶山の 유람을 통한 풍류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사한 분야인 산문연구³⁾도 협소하고 특히 記文 연구 더욱 그러하다. 茶山の 記文은 대체로 山水를 遊覽하고 남긴 山水遊記가 많다. 山水遊記는 작가의 내적 심리와 당대 문화를 잘 이해 할 수 있고 작가정신을 고찰할 수 있다. 茶山の 유람은 방대했고 이는 산문뿐만 아니라 기행시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茶山の 기행시를 통한 유람과 풍류에 관한 논의⁴⁾도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山水遊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용환진⁵⁾이 『穿牛紀行』을 중심으로 遊覽 목적 및 여정별 형상화 양상, 춘천의 역사를 고증한 것과 신은경⁶⁾이 『汕行日記』의 성립배경과 구성방식을 분석해 대위법적인 미적 효과를 도출한 것과 심경호⁷⁾가 춘천지역에 대하여 남긴 기록을 참고로 개별적으로 茶山の 춘천관과 만년의 정신세계를 살펴본 것이 전부이다.

茶山の 첫 山水遊覽⁸⁾은 연보에 나타나듯이 1778년 17세에 전남 화순의 동복현에 있는 勿染亭과 광주 瑞石山이다. 물염정의 그윽한 경치와 신

3) 대표적인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박무영, 『정약용의 초기[仕宦期] 산문에 대하여』, 『다산학』 6, 다산학술문화재단, 2005, pp.73-104; 장진숙, 『茶山 贈言 산문의 특징과 그 교육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pp.231-260; 정일남, 『茶山 丁若鏞의 ‘屈騷’ 수용 양상』, 『韓國漢文學研究』 46, 한국한문학회, 2010, pp.387-415; 박철완, 『다산 『설』체 산문의 서술양상과 특징 고찰』, 『청람어문교육』 22, 청람어문학회, 2000, pp.225-247.

4) 하강진은 『다산 정약용의 시문학 공간으로서 뜰』(『영주어문』 27, 영주어문학회, 2014, pp.85-113.)에서 1791년 다산이 자식 요절로 반전된 기녀와의 화락했던 풍류를 기술하고 있다.

5) 용환진, 『茶山の 春川紀行詩研究』, 『漢文古典研究』 22, 한국한문고전학회, 2011, pp.121-148.

6) 신은경, 丁若鏞의 『汕行日記』 연구, 『국어국문학』 153, 국어국문학회, 2009, pp.135-161.

7) 심경호, 『다산과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5.

8) 본고의 山水遊覽에 관한 개념은 배·사찰·누정·산수에서 노닌 遊覽 전부를 지칭한 포괄적인 개념과 유람 및 기행으로 병행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령스러운 운치를 『遊勿染亭記』로 남기고 있고 서석산[무등산]의 기암절벽, 飛泉과 괴상한 폭포 등 승경을 『遊瑞石山記』로 남기고 있다.

“그렇지 않다. 무릇 遊覽하려는 뜻이 있는 사람은 마음먹었을 때 용감하게 가야 하는 것이다. 날짜를 잡아 가기로 마음을 먹으면 우환과 질병이 일을 그르치게 된다. 더구나 구름과 비가 달을 가리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⁹⁾

위의 글에서 茶山의 遊覽에 대한 생각이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遊覽에 대한 적극성과, 勿染亭에 관한 비유적 표현, 사실적 기록, 기록이 유를 적고 있다. 한편 술을 마시며 詩를 지으며 山水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茶山이 처음 詩를 지은 것은 1768년, 그의 나이 7세 때이다. 또한 ‘山’이라는 제목도 눈여겨 볼만하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山水에 대한 생각은 어린 시절부터 지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기존 연구를 극복하고자 茶山이 樓亭·臺·서원·사찰·船遊·逍遙·詩會·遊山·宴會 등 다양한 형태의 유람 및 기행¹⁰⁾을 하고

9) 정약용, 『여유당전서』 13, 『遊勿染亭記』, “余曰不然, 凡有遊覽之志者, 意到遂當勇往, 苟期之以日, 必有憂患疾病敗吾事者, 況可以保天之不雲雨以障月哉.”(본고는 고전번역원 『與猶堂全書』와 『다산시문집』 및 국역을 참조하였다. 이하 권 및 작품명만 나타낸다.)(정약용, 『여유당전서』 13, 『遊勿染亭記』, “余曰不然, 凡有遊覽之志者, 意到遂當勇往, 苟期之以日, 必有憂患疾病敗吾事者, 況可以保天之不雲雨以障月哉.”(본고는 고전번역원 『與猶堂全書』와 『다산시문집』 및 국역을 참조하였다. 이하 권 및 작품명만 나타낸다.)

10) 본고의 문제의식 및 논의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산의 유람 및 기행은 0°에서 출발한다. 공자의 풍류를 즐기고, 산수의 선경에 은일하여 학문탐구를 통해 공자(성인)가 되기를 지향했다. 그의 학문을 긴수작과 한수작의 풍류로 생각했을 때 둘 다 조화롭게 연출하고자 했다. 물론 평소에는 긴수작이 유람에는 한수작이 많았겠지만 이 둘은 항상 생활화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한수작을 향유하며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시 창작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산은 한수작의 풍류를 시로 형상화하면서

남긴 작품, 즉 記文과 기행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茶山의 유람에 나타난 풍류의 의미를 밝히고자 (1) 舞沂之風를 통한 樂道, (2) 유람 및 기행을 통한 은일지향, (3) 緊酬酢과 閒酬酢의 습합, (4) 서정의 시적형상화와 현실인식 및 비판의 순서대로 다루고자 한다.

II. 舞沂之風를 통한 樂道

공자는 제자 曾點이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벗 대여섯 명과 아이들 예닐곱 명을 데리고 沂水에 가서 목욕을 하고 기우제 드리는 舞雩에서 바람을 쏘인 뒤에 노래하며 돌아오겠다.”¹¹⁾라고 하자 감탄하며 허여한다. 공자는 여기서 정치 현실에 참여하여 뜻을 펼치기 보다는 道와 德을 함양하며 시를 외는 모습을 최고의 풍류로 지칭하고 있다. 물론 그 배경은 沂水와 舞雩臺에서 이뤄지는 풍류¹²⁾인 것이다.

서쪽 동산 저무는 빛이 애석해,

昔惜西園暮

함께 현실을 인식하는 은일관, 자연관을 가졌다. 본고는 이러한 순차적 구성 및 단계를 걸쳐 다산의 풍류를 고찰하고자 한다. 유람 및 기행을 마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지점은 0°가 아니라 이러한 다채로운 현상을 인식하고 표현한 360°로 회귀한 것이다.

11) 『논어』『先進』, “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12) 공자는 天命의 道를 즐겨서 그 분수에 처할 바를 얻고자 했다. 즉, 알인육존천리의 경지인 것이다. 나아가 본고는 정우락의 논의처럼, 공자의 예술적 심미성에도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정치적 현실보다는 기수와 무우의 풍류를 통한 예술적 승화에 관심을 가진다. 孔子의 風流에 관해서는 정우락의 『『논어』의 문학사상』(김영호 외, 『『논어』의 종합적 고찰』, 심산, 2003, pp.281-321.)에 잘 나타나고 있다.(김종구, 『가야산 유산 기에 나타난 작가의식과 유산문화의 유형』, 『어문론총』 59,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p.277. 재인용.)

북쪽 물가 봄빛을 제쳐두고서,	仍違北渚春
문 나서자 꽃들이 눈 안에 가득,	出門花滿眼
물가 임해 잔디를 깔고 앉았네.	臨水草成茵
말 자취는 교외라 흔하지 않고,	馬跡過郊少
찌꼬리 소리 골짜기에 맑게 들린다.	鶯聲入谷新
난정이라 필연이 남아 있고요,	蘭亭遺筆硯
기상이라 의견은 옛날 그 모습.	沂上舊衣巾 ¹³⁾

위의 시는 「여러 벗들과 서쪽 동산에 노닐며」의 일부이다. 茶山이 여러 벗과 가까운 동산에서 노닌 풍류이다. 茶山은 「난정기」에 나타나는 풍류¹⁴⁾를 즐기고 있었다. 여러 벗과 山水之間을 노닐며 술을 마시며 시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단순한 흥취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복희·신농·공자·맹자를 추모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공자 제자, 자사가 행한 예를 칭송하고 있다. 茶山은 성인이 남긴 뜻을 길이 간직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茶山은 舞沂之風은 「도산사숙록」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茶山은 퇴계를 “선생이 홀로 도의 근원에 이르고 奧妙한 경지에 나아갔으므로 본디 諸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¹⁵⁾라고 평하였다. 茶山은 曾點의 대답을 인용하여 퇴계의 풍류를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茶山은 산에 오르고 물가에 임하여 꽃을 찾고 버들 숲을 노니는 舞沂之風의 즐거운 기쁨을 알았다. 그리고 퇴계처럼 道의 근원에 나아가고자 한 것이다.

(가) 관자 동자가 다 같이 즐거워하니,

冠童齊歡洽

13) 『다산시문집』 1, 「同諸友遊西園」

14) 『고문진보』 후집, 「난정기」 참조.

15) 『다산시문집』 2, 「陶山私淑錄」, “先生獨到道源, 超詣奧妙, 固非諸公所能領會者也.”

훌륭한 풍도에 기수의 목욕 상상했지.	欽風想浴沂
좋은 성음은 화려한 경치를 감싸고,	德音溫繡錦
맑은 시구는 구슬이 넘친 듯하네.	清詞溢珠璣 ¹⁶⁾

(나) 나는 적은 돈으로 배 하나를 사서 배 안에 漁網 네댓 개와 낚싯대 한두 개를 갖추어 놓고, 또 술과 잔과 소반 같은 여러 가지 섭생에 필요한 기구를 준비하며 방 한 칸을 만들어 온돌을 놓고 싶다. 그리고 두 아이들에게 집을 지키게 하고, 늙은 아내와 어린아이 및 어린 종 한 명을 이끌고 浮家汎宅 [물에 떠다니면서 살림을 하고 사는 배]으로 鐘山과 菴水 사이를 왕래하면서 오늘은 奧溪의 연못에서 고기를 잡고, 내일은 石湖에서 낚시질하며, 또 그 다음날은 門巖의 여울에서 고기를 잡는다. 바람을 맞으며 물 위에서 잠을 자고 마치 물결에 떠다니는 오리들처럼 동실등실 떠다니다가, 때때로 찰박찰박한 詩歌를 지어 스스로 기구한 정회를 읊고자 한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¹⁷⁾

(가)는 『天真消搖集』에 있는 船遊¹⁸⁾의 시, 『집에 돌아온 다음 도미담에

16) 『다산시문집』 7, 『旣歸追述度迷潭泛舟之樂示諸公』

17) 『여유당전서』 14, 『茗上煙波釣叟之家記』, “余欲以一金買一舟, 舟中置漁網四五張, 釣竹一二竿, 備鼎鑪枱盤諸凡養生之器, 爲屋一間而炕之, 令二兒守家, 挈老妻稚子及僮一人, 浮家汎宅, 往來於鍾山菴水之間, 今日漁于粵溪之淵, 明日釣于石湖之曲, 又明日漁于門巖之瀨, 風餐水宿, 汎汎若波中之鳧, 時爲短歌小詩, 以自抒其崎嶇歷落之情, 是吾願也.”

18)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선유가 일어난 작품을 유람 및 기행에 포함시켰다.(이하, 아래 목록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함. 이하 관련 서술 생략.) 다음은 茶山이 선유를 하고 남긴 기행시이다.

『春日陪季父乘舟赴漢陽』·『陪外舅洪節度汎舟』·『同友人 李德操 槃 乘舟入京』·『秋日乘舟出豆毛浦』·『冬日乘舟到溪陰 得病入京』·『暮春由豆毛浦還菴川舟中作』·『篙工歎』·『陪家君出豆毛浦 陸佐郎 萬中 亦至 同赴菴川 廣州尹爲筵管絃一部 舟中次陸丈韻』·『放船』·『挂帆』·『三灘絕句』·『自菴川乘舟抵漢陽』·『仲氏登司馬試 將赴菴川 陪家君出豆毛浦 韓禮安 光傳 吳承旨 大益 二丈亦偕 舟中有作』·『同諸友乘舟至月波亭汎月』·『春日舟還菴川』·『伏聞東宮薨逝 卽日乘舟赴京』·『孟冬自山莊乘舟還京』·『自南一源乘舟還門巖莊』·『南浦月夜 同諸君汎舟』·『九月瑞蕙臺試射日作』·『大西舍

서 배 띄우고 즐겁게 놀았던 일을 추후로 기술하여 제공에게 보이다.이다. 茶山은 船遊를 통해 산수의 고요한 성정을 닮고자 하였고 세속의 번뇌를 벗어버리고 마음을 활연히 펴고자 하였다. 즉, 성정을 도야하여 도학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자 했다. 茶山은 舞沂之風처럼 시를 짓고 산수를 즐기는 풍류와 道를 즐기고 함양하는 풍류가 있었다.

(나)는 茶山의 소원이 잘 드러나고 있다. 浮家汎宅을 갖춰 船遊를 생활화하며 詩를 짓고자 한 것이다. 浮家汎宅의 조건도 적은 돈·낙시도구·섬생도구·아내와 가족이다. 이 기문¹⁹⁾을 통해 일상의 삶과 山水遊覽이 동일화, 일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평도가 많은 돈, 오락기구와 더불어 현실을 잊은 채 망한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同金 義淳 金 履喬 李 明淵 諸僚 奉旨寫御製詩卷·「嘉興江放船」·「汎舟至蟾江口 懷族父海左 範祖 宅」·「舟中作」·「楊江遇漁者」·「舟過粵谿」·「前湖汎月」·「過巖龕洲 舟中戲爲絕句三首」·「乘小艇泝流宿溪陰村」·「烏淵汎舟」·「自江西寺乘舟至碧瀾渡」·「八月十五日 陪李觀察義駿汎舟紫霞潭 至烏淵候月 泛至文城橋夜還 此間山水絕勝 而前此無人來游 余與李公實親爲之」·「晚泊月峴嶺下」·「觀諸生施咒」·「八月二日 因仲氏挈眷東還 同尹无咎上舟偕行 次朱竹垞鴛鴦湖櫂歌諸韻」·「汎舟下蟾江口」·「舟發廣陵」·「乘小舟捕魚 得兒書知有召命 明日下峽恭述微忱」·「送妻子舟還茗川」

19) 茶山の 전체 記文은 다음과 같다.

「沙村書室記」·「朝夕樓記」·「浮菴記」·「醉夢齋記」·「一鉢菴記」·「重修挽日菴記」·「海南政事堂記」·「逍遙園記」·「於斯齋記」·「遊勿染亭記」·「遊瑞石山記」·「東林寺讀書記」·「伴鶴亭記」·「仙夢臺記」·「晉州義妓祠記」·「游水鍾寺記」·「月波亭夜游記」·「晚漁亭記」·「秋水亭記」·「每善堂記」·「無號菴記」·「每心齋記」·「有志堂記」·「得月堂記」·「望荷樓記」·「與猶堂記」·「品石亭記」·「守吾齋記」·「四宜齋記」·「南湖汎舟記」·「海美南相國祠堂記」·「丹陽山水記」·「洪節度御賜角弓記」·「再游蠡石樓記」·「游洗劍亭記」·「北營罰射記」·「寄園記」·「羽化亭記」·「芙蓉亭侍宴記」·「梧竹軒記」·「永保亭宴游記」·「釣龍臺記」·「游烏棲山記」·「清時野草堂記」·「奎瀛府校書記」·「游天真菴記」·「竹欄花木記」·「谷山政堂新建記」·「書香墨味閣記」·「芙蓉堂記」·「紫霞潭汎舟記」·「高達窟記」·「黃州月波樓記」·「蒼玉洞記」·「觀寂寺記」·「游石林記」·「臨清亭記」·「茗上煙波釣叟之家記」·「御賜芙蓉扇記」·「五客記」·「華城五星池記」·「谷山北坊山水記」·「西巖講學記」·「汕行日記」·「汕水尋源記」

비판하였다. 茶山은 도학의 실천,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茶山の 기문은 배에서 노닌 기록, 「紫霞潭汎舟記」·「南湖汎舟記」·「游石林記」와 사찰에서 노닌 기록, 「東林寺讀書記」·「游天真菴記」·「觀寂寺記」와 누정에서 노닌 기록, 「遊勿染亭記」·「臨淸亭記」·「月波亭夜游記」·「芙蓉亭侍宴記」·「伴鶴亭記」·「朝夕樓記」·「黃州月波樓記」와 山水에서 노닌 기록, 「汕行日記」·「汕水尋源記」·「遊瑞石山記」·「蒼玉洞記」 등이 있다.

茶山은 「부여 현감 한원례 백원과 함께 고란사 밑에서부터 배를 타고 자온대까지 갔는데 배안에서 장난삼아 지어 원례에게 보이다」²⁰⁾에서 선유를 하면서 음악을 향유하고 있으며 소동파의 적벽유를 능가할 수 있다고 자찬하고 있다. 특히 「벗 이덕조 벽과 함께 배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다」²¹⁾에서는 소동파의 물아일체의 경지와 이웅과 곽태의 지조가 있는 同人之樂을 칭송하였다. 게다가 전자와는 반대로 자신의 재주를 즐렬하게 여겨 다시 서적의 경전과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였다. 茶山은 舞沂之風을 통해 道에 종사하고 즐기고자 한 것이다.

옷소매는 봄바람 속이라면,	衣袂春風裏
숲 동산은 고운 해 가운데로세.	林園麗景中
넷물 빛 들판 뻗어 희게 비치고,	川光橫野白
꽃기운은 성 가득 붉게 빛나네.	花氣滿城紅
원례 명망 당초에 드높았는데,	元禮名初重
휴문 시부 다시금 웅장하여라.	休文賦更雄
경물 구경하자는 여행 아니고,	旅滂非玩物
갈고 닦는 공부에 도움 받고자.	深藉琢磨功 ²²⁾

20) 『다산시문집』 2, 「同扶餘縣監韓元禮 百源 自皐蘭寺下汎舟至自溫臺 舟中戲吟示元禮」

21) 『다산시문집』 1, 「同友人 李德操 槩 乘舟入京」

위의 시는 「심유침 등 벗들과 함께 약초밭에서 저녁 경치를 구경하며」이다. 茶山은 봄바람·숲 동산·냇물·꽃 등을 통해 舞雩와 沂水의 풍류를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원례와 휴문의 고사를 인용하여 지조와 문장을 겸비한 모범적 군자인 그의 벗, 심유침을 비유하고 있다. 茶山은 도학군자와 함께 공유하며 철차탁마의 공부를 하고자 한 것이다. 단순히 산수를 완상하는 유람이 아니라 舞沂之風을 통해 근원적인 道를 함양하고 즐기고 있는 것이다.

茶山은 「오서산 꼭대기에 올라서서」²³⁾에서 공자가 뗏목 타고 오려고 했던 일을 두고 오서산의 아름다움과 우리나라에 禮樂과 道가 행해지고 있음을 기뻐하였다. 「초가을에 중형을 모시고 봉은사에 노닐며」²⁴⁾에서는 船遊와 遊山을 하면서 경전공부를 열심히 한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漢武帝 때의 公孫弘이 명리에만 빠져 올곧지 못함을 비판하고 있다. 「가을밤」²⁵⁾에서는 가을밤에 소요를 하면서 알인옥존천리의 경지에 들어서고 있었다.

茶山の 유람 및 기행에서는 舞沂之風이 있었다. 공자는 난세에 올바른 정치가 행해지지 않자, 舞雩와 沂水에서 즐기는 풍류와 道와 德의 실천을 최고의 이상으로 여겼다. 茶山 또한 遊山·선유·소요·사찰 등 다양한 풍류문화를 통해 舞沂之風을 즐기고 도학에 종사하며 道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화는 심성수양론과 高士에 대한 동경, 부정부패한 선비를 비판하는 것으로 자연스레 표출되고 있었다.

22) 『다산시문집』 1, 「同沈孺瞻諸友樂園晚眺」

23) 『다산시문집』 2, 「登烏樓山絕頂」

24) 『다산시문집』 1, 「早秋陪仲氏遊奉恩寺」

25) 『다산시문집』 2, 「秋夜」

Ⅲ. 유람 및 기행을 통한 은일지향

茶山은 『도산사숙록』에서 “선생이 일생 동안 恬退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무릇 예전 사람이引退한 사례를 모두 찾아 모아 쓰일 때를 기다렸으니, 그 애쓰신 마음, 굳은 지조는 볼 만한 것이 있다.”²⁶⁾라고 하여 퇴계가 은일하여 학문을 탐구한 것을 추송하였다. 또 茶山은 퇴계가 백이²⁷⁾ 숙제처럼 風教를 행했던 집에 후학들이 감화되어 성정을 도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은일에 대한 지향이 지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꿈속에서도 문암장을 생각해 온 지가,	夢想門巖墅
이제까지 사십 년이 되었는데.	如今四十年
산 속에 은거하는 건 못 이루고,	不成山裏臥
도리어 바다 남쪽에 귀양을 와서.	轉作海南遷
백발과는 함께 은거하기를 꾀하고,	白髮謀偕隱
좁쌀 심자고 메마른 땅 찾았네.	黃粱問薄田
애석히도 남은 서책을 다 못 읽어,	殘經惜未了
영원히 은거할 마음 불현 듯 하여라.	長逞意飄然 ²⁸⁾

위의 시는 茶山의 『윤사월 십이일에 이약암과 함께 문암장에 가 노닐면

26) 『다산시문집』 22, 『도산사숙록』, “先生一生以斂退爲主, 故凡前人引退之例, 皆搜羅待用, 其苦心確操, 有足見者.”

27) 『맹자』 「만장 하」에 “백이의 풍도를 듣게 되면 완악한 자는 청렴해지고 나약한 자는 지조를 세우게 된다.”(“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有立志.”)라고 하였고, 『논어』 「술이」에 “‘옛날의 현인이시다.’하셨습니다. ‘후회하였습니까?’ 하고 묻자, ‘仁을 구하여 인을 얻었으니, 다시 어찌 후회하였겠는가.’”(“曰古之賢人也, 曰怨乎, 曰求仁而得仁, 又何怨.”)라고 하였다.

28) 『다산시문집』 7, 「閏四月十二日同李約菴游門巖莊舟中作」

서 배 안에서 짓다」중 일부이다. 茶山은 문암에 깃들여 산수와 더불어 은거하려는 꿈이 있었지만 유배로 인해 온전한 은일²⁹⁾을 하지 못함을 슬퍼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전을 열심히 읽었고 은거의 마음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 특히 茶山은 文山子 李載毅(1772-1839)가 은일하여 학문에만 종사해 『周易』에 능통했고, 詩文에도 능했음을 부러워했다.

『茗上煙波釣叟之家記』는 은사 장지화를 존경하고 흠모하여 부가를 실행하고자 했으나 임금이 상을 당하여 정자에 記文을 달아놓고 서울로 떠나게 된 계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장지화는 본래 館閣의 學士로서 만년에 물러나와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는 ‘煙波釣叟’라고 자호했다. 그러므로 茶山은 그의 風貌를 듣고 흠모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汕行日記』의 기록을 보면 배의 좌우 기둥에 ‘장지화가 초상에 노닌 취미[張志和 茗苔之趣]’, ‘예원진이 호묘에 노닌 정취[倪元鎮湖溯之情]’라고 쓰고 山水遊覽³⁰⁾을 떠나고 있어 선현에 대한 흠모와 동경을 확인할 수 있다.

29) 茶山은 『汕水尋源記』에서 “우측으로 淸平의 물을 거치고, 慶雲山 淸平寺는 곧 李資玄이 은거한 곳으로 瀑布 3-4줄기가 있다.”(“右過淸平之水, 慶雲山淸平寺, 卽季資玄棲隱處, 有瀑布三四道.”)라고 고사의 은일처를 고증하여 은일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기도 한다.

30) 茶山이 거의 온전히 산수를 유람하고 남긴 기행시는 다음과 같다.

「同諸友遊西園」·「登瑞石山」·「踰龍谿阪」·「登聖住菴」·「上雲吉山」·「陪仲氏同閔生遊門巖莊」·「榮川苗坡訪族父進士 協祖 處士 載種 山居」·「自北漢回至洗劍亭 戲爲六言」·「登北嶽」·「丹陽山水歌示南臯」·「九月三日同申進士游烏棲山 過花巖作」·「登天井菴」·「登烏棲山絕頂」·「山中絕句」·「訪堂叔父玉泉山居」·「留題族父海左翁山居」·「望龍門山」·「山亭值雨」·「登月出山絕頂」·「茶山八景詞」·「茶山花史」·「族父吏部公山莊 賦得庭前怪石」·「朴穉玉 斗采 至 次金佐賢四郡游覽之作」·「同諸友游龍山亭子」·「山中感懷」·「李周臣山亭值雨 同諸友遺興三十韻 用拈韻法 棋子三十 每書一韻 貯之瓶中 任瀉一棋 點綴成文」·「溪行」·「山行書懷」·「重游高達窟」·「出峽同无咎」·「山行雜謳」·「山翁」·「山中值雨」·「到山亭」·「山閣夜集」·「賦得山北讀書聲」·「病伏十有二旬 適逢玄谿令公從龍門 水鍾而至 將南游天眞菴 勉而從之 仍訪石泉翁偕適 三家少年及季林聖九規伯亦從焉 到水南作」·「次韻詠山木」·「山木」·「次韻詠

세상 영리 추구엔 마음이 없어,	既已澹營求
아침저녁 노닐이 아깝지 않으니.	不須咨朝晚
내 마땅히 정포의 나그네처럼,	當如鄭圃客
열닷새가 지난 뒤 돌아가려네.	旬有五日反
서울에서 떠도는 천박한 무리,	儂子游京華
고향의 보급자리 폐하려 하네.	便欲廢丘壑
젓무르고 끓아서 썩은 지 오래,	脆醲久已腐
창자를 씻을 약을 어찌 얻을꼬	安得洗腸藥 ³¹⁾

위의 시는 茶山의 『절에서 잠을 자며』이다. 茶山이 봉은사에서 중형, 丁若銓과 함께 있을 때 지은 것이다. 茶山은 여러 차례 절에서 잠을 자며 은일에 대한 동경과 산수의 아름다움을 통해 심성을 수양하고자 했다. 가을 하늘·산과 들·강물·꽃과 함께 유유자적 노닐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알인육존천리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했다.

특히 『장자』 「逍遙遊」의 “열자가 바람 기운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서 기분 좋게 보름 동안쯤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돌아온다.”³²⁾라고 한 풍류를 즐기고자 한 것이다. 즉, 춘추시대 列子가 정나라의 들밭에서 40년 동안 은거한 것처럼 그 또한 사찰에 은일하여 속세의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茶山의 알인육존천리는 도학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 수양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茶山은 「영천 줄파에서 족부 진사 협조와 처사 재종의 산중 집을 찾아가다」³³⁾, 「부친을 모시고 조씨의 시냇가 정자를 함께 찾아가다」³⁴⁾와 같이

山木」·「四月二十一日上寺 二十二日出山宿江村 二十三日泛舟斗尾 舉網不得魚 悵然有作」·「登龍門白雲峯」·「出清平洞口」·「出峽」

31) 『다산시문집』 1, 「宿寺」

32) 『장자』 「逍遙遊」, “列子御風而行, 泠然善也, 旬有五日而後反.”

33) 『다산시문집』 1, 「榮川苗坡訪族父進士 協祖 處士 載種 山居」

당대와 전대의 隱逸之士를 동경, 흠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가난하지만 서책을 보고 농사를 지으며 강학을 하는 중친을 부러워하기도 하였고, 漢末 襄陽人 龐德公이 峴山의 남쪽에 은거하여 벼슬 초빙에도 나가지 않았고 결국 처자를 데리고 鹿門山으로 들어간 隱逸之士의 풍모를 부러워하기도 하였다.

지는 햇살 강촌을 내리비칠 때,	落日臨江屋
맑은 가을 두메 골 올라가는 배.	清秋上峽船
돛을 높이 달고서 가지 못하고,	不成揚帆過
쓸쓸히 등불 베풀어 잠을 이뤘네.	聊作伴燈眠
산골짜기 은거할 높은 뜻 지녀,	丘壑懷高志
시서 익힌 젊은 날 애석할 따름.	詩書惜壯年
명예 마당 하찮은 이해와 득실,	名場小得失
약한 아내 동정을 도리어 받네.	還被弱妻憐 ³⁵⁾

위의 시는 「가을날 배를 타고 두모포로 나간다」이다. 茶山은 소내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水村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집에서 보내온 서신을 받고서 성균관 시험에 뽑힌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초야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살고 싶은 뜻이 다분했다. 결국 山水之間에 은거하여 산수와 합일하며 학문을 講磨하고자 하였다.

「집에 돌아온 다음 도미담에서 배 띄우고 즐겁게 놀았던 일을 추후로 기술하여 제공에게 보이다」³⁶⁾에서는 선유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西湖의 孤山에서 20년 동안 은거한 隱逸之士, 梅妻鶴子 임포를 생각하기도 한다.

34) 『다산시문집』 1, 「陪家君同尋曹氏溪亭」

35) 『다산시문집』 1, 「秋日乘舟出豆毛浦」

36) 『다산시문집』 7, 「既歸追述度迷潭泛舟之樂示諸公」

茶山은 “공이 처신하는 것과 세상 살아가는 것은 대개 마음에 스스로 얻은 것이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초야에 묻혀 사는 것도 도가 있으니, 맑은 시대가 아니면 비록 초야에 묻혀 살려고 해도 될 수가 없다.”³⁷⁾라고 하여 은일처사, 族父 海左翁을 칭송하였다. 茶山은 그가 사가독서를 했던 인물이었고 더욱이 淸時野草堂을 지어 놓고 山水의 꽃·나무·怪石의 사이에서 두건을 쓰고 은일하여 순수하게 학문을 탐구하는 모습을 동경, 흠모했던 것이다.

茶山은 퇴계가 만년에 물러나 은일하여 학문에 증진했던 점을 추종하여 그 또한 은일³⁸⁾을 지향했다. 비록 긴 유배의 시절을 보냈지만 유배는 그가 원했던 隱逸之士의 삶은 아니었던 것이다. 茶山은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隱士를 추모했고 당대의 隱士 또한 존경했다. 고대의 隱士가 노닐 풍류를 모방하여 노닐기도 하였고 당대의 隱士가 살고 있던 곳을 유람 및 기행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37) 『다산시문집』 14, 『淸時野草堂記』, “公所以處身涉世, 蓋有自得於心, 而非人之所能爲也, 且野有道, 不以淸時, 雖欲野不可得也.”

38) 다산의 은일은 현실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은일이었다. 그러했기에 국가와 백성을 걱정하는 시를 다수 남겼다. 하지만 1차적으로 그가 가진 은일에 대한 순수성만은 저버릴 수 없다. 그는 『與姜仁伯』에서 “나의 평생소원은 山水에서 생활하면서 賢豪한 長者와 더불어 物外에 노닐며 읊조리는 것입니다.”(“鑑生平所願, 卽徜徉山水, 而又得與賢豪長者, 游吟物外.”)라고 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산의 은일관에 관해서는 김봉남, 『茶山 詩에 함축된 內面意識의 변모양상』(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p.9-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산은 어린 시절부터 은일에 대한 꿈이 지대했던 것이다. 이는 학문적으로 순수한 탐구와 수양을 위한 것이다. 즉, 알인육존천리, 천인합일을 하고자 한 의도인 것이다.

VI. 緊酬酢과 閒酬酢의 습합

긴장과 이완에 관한 논의는 『예기』 「雜記」에 “활을 조이기만 하고 늦추지 않듯이 백성을 오랫동안 부리기만 하고 풀어 주지 않는다면 문왕·무왕 일지라도 다스리지 못하고, 활을 풀어 놓기만 하고 조이지 않듯이 백성을 안일에 빠지게 한다면 문왕·무왕도 하지 않을 것이니, 한 번 조이고 한 번 늦추는 것이 문왕·무왕의 도이다.”³⁹⁾라고 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긴장과 이완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⁴⁰⁾ 茶山의 유람은 긴장과 이완의 습합이 적절하게 이뤄졌다. 즉, 긴수작과 한수작이 조화된 풍류⁴¹⁾를 향유하고자 했던 것이다.

(가) 1777년 16세에 선배 이가환과 자형 이승훈을 추종하여 星湖 李瀼의 유고를 보고 사숙했다. 진주공의 임소인 화순으로 따라갔다. 청주, 전주 등지를 遊覽하면서 詩를 지었다.⁴²⁾

(나) 1778년 17세에 그 해 겨울에는 둘째형 약전과 함께 화순현에 있는 東林寺에서 독서하며 『맹자』를 읽었다.⁴³⁾

39) 元陳澧撰, 『陳氏禮記集說』 「雜記」, “張而不弛, 文武弗能也, 弛而不張, 文武弗爲也, 一張一弛, 文武之道也 張, 張弦也, 弛, 落弦也, 孔子以弓喻民, 謂弓之爲器, 久張而不弛則力必絕, 久弛而不張則體必變, 猶民, 久勞苦而不休息則其力, 憊, 久休息而不勞苦則其志, 逸, 弓必有時而張, 有時而弛, 民必有時而勞, 有時而息, 文武弗能, 言雖文王武王, 亦不能爲治也, 一於逸樂則不可, 故言文武弗爲.” 참조.

40) 김종구, 「안덕문의 산수유람에 나타난 존현의식과 풍류 -『동유록』과 기행시를 중심으로 -, 『南冥學研究論叢』 21, 남명학연구원, 2016, p.262. 재인용.

41) 본고의 자연, 산수는 대상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긴수작과 한수작의 습합은 자연스러운 귀결점이다. 긴장과 이완, 장수유식을 통해 보더라도 한쪽만 치우친 경우는 덕이 높은 유자라 칭할 수 없는 것이다.

42) 『경세유표』, 「연보」 참조.

43) 『경세유표』, 「연보」 참조.

(다) 1780년 19세에 진주공이 예천군수로 부임하자 그곳에서 글을 읽었다.
 伴鶴亭, 蠡石樓를 遊覽하며 독서하고 詩를 지었다.⁴⁴⁾

茶山은 山水遊覽을 하며 사찰⁴⁵⁾에서 독서를 하였고 詩를 지으며 記文을 남긴다. (가), (나), (다)를 통해 遊覽과 독서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긴수작과 한수작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 또 1808년 47세, 茶山의 유배시절에는 臺를 쌓고, 못을 파고, 꽃나무를 심고, 물을 끌어 폭포를 만들고, 동쪽 서쪽에 두 암자를 짓고, 서적 천여 권을 쌓아놓고 글을 지으며 스스로 山水를 즐기고 있었다. 茶山의 산수는 사물

44) 『경세유표』, 「연보」 참조.

45) 茶山이 사찰을 유람하고 남긴 기행시는 다음과 같다.

「游水鐘寺」·「讀書東林寺」·「春日游水鐘寺」·「早秋陪仲氏遊奉恩寺」·「宿寺」·「寺居雜詩」·「宿奉恩寺」·「宿水鐘寺」·「宿中興寺」·「過龍鳳寺」·「寺夜同石門申進士聯句」·「訪臯蘭寺」·「十一月一日 於西巖鳳谷寺 溫陽地 陪木齋李先生校星翁遺書 時隣郡士友多會者 各賦詩一篇 會者 李廣教文達 承旨秀逸孫 李載威處成 弘文提學夏鎮玄孫 朴孝兢嗣玉 校理孝成弟 姜履寅士賓 三休堂世龜玄孫 李儒錫汝昂 承旨日運子 沈潞仲深 吏曹判書諒玄孫 吳國鎮孟華 右議政始壽玄孫 姜履中用民 履寅再從弟 權夔堯臣 大提學愈玄孫 姜履五伯徽 校理忱從子 李鳴煥佩謙 木齋弟」·「登神勒寺東臺」·「竹欄社會賦得新晴」·「竹欄小集 賦得積雨新晴 奉示樊巖大老」·「秋日竹欄遣興」·「同南阜竹欄小飲」·「秋夜竹欄小集 每得一篇 南阜爲余朗誦 其聲清切哀婉 令人泣下 要聞其聲 戲爲絕句 意不在詩 遂多蕪拙 本十九首 今刪之 錄十首」·「竹欄月夜同南阜飲」·「竹欄菊花盛開 同數子夜飲」·「春日小西舍侍宴」·「端午日陪二兄游天真庵」·「寺夕」·「竹欄小集 與尹彝敘李周臣韓侯父賦得田家夏詞八十韻」·「遊資孝寺」·「獨游高達寺懷李察訪 再用前韻」·「夜游資孝寺」·「四月三日游觀寂寺 二兒隨之」·「下嶺訪立巖寺值雨」·「竹欄遣興」·「菊花同侯父無咎竹欄宴集」·「夏日竹欄小集射韻」·「四月十七日游白蓮寺」·「惠藏至高聲寺遣其徒相報 余遂往逆之 值小雨留寺作」·「滯寺六月三日值雨」·「病鐘」·「九月十六日 携兩少年 金世俊黃裳 游淨水寺 過南城作」·「抵寺」·「宿修道庵 惠藏不期而至」·「四月三日游白蓮社」·「將游淨水寺 晚過粵姑津」·「轉游水精寺」·「春日游白蓮寺」·「再游白蓮寺」·「夜宿天真寺 寺破無舊觀 余蓋三十年重到也」·「二十九日同趙李 二翁游斜川寺」·「夜宿清平寺和東坡蟠龍寺」·「清平寺觀瀑」·「寺夜霽菽乳」·「出寺」

의 근원을 탐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 아버님이 이 고을에 縣令으로 온 다음해 겨울에 나는 둘째 형님과 함께 동림사에 머물러, 둘째 형님은 『尙書』를 읽고 나는 『孟子』를 읽었다. … 날이 저물어 별이 보이면 언덕에 올라 휘파람 불며 詩를 읊조리고, 밤이면 중이 偈頌을 읊고 佛經을 외는 소리를 듣다가 다시 책을 읽는다.⁴⁶⁾

(마) “伴鶴亭은 그윽하고 조용하여 독서를 하고 詩를 지을 만한 곳입니다. 정각과의 거리도 좀 떨어져 있고 빙 둘러 담으로 막혀 있어서 訟獄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참으로 子弟가 처할 만한 곳입니다. 오늘 닦아내고 쓸어낸 뒤에 침상과 이불을 옮기려고 합니다.”⁴⁷⁾

(라)는 『東林寺讀書記』이고 (마)는 『伴鶴亭記』이다. 아버지를 따라 각각 烏城縣, 醴泉에 거처하며 東林寺, 伴鶴亭에 山水遊覽과 독서를 함께 한 것이다. 東林寺에서는 독서를 하며 詩를 읊고 山水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었고 伴鶴亭에서도 독서를 하고 詩를 짓고 있었다.

이때 茶山은 11월 중형과 함께 독서한 것을 『동림사에서 글을 읽으며』⁴⁸⁾라고 시를 짓기도 한다. 茶山은 새벽까지 잠들지 않고 『맹자』를 열심히 읽은 것은 풍경소리와 산속의 그윽한 정취를 통해 심성을 맑게 하고자 한 것이지 영달과 이욕을 추구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⁴⁹⁾ 茶山은 自省의 목

46) 『與猶堂全書』 13, 『東林寺讀書記』, “家君知縣之越明年冬, 余與仲氏住棲東林, 仲氏讀尙書, 余讀孟子 … 昏星見, 卽登阜歎詠, 夜則聽偈語經聲, 隨復讀書.”

47) 『與猶堂全書』 13, 『伴鶴亭記』, “伴鶴亭幽深靜僻, 可以讀書, 可以賦詩, 距政閣有間, 障以繚垣, 不聞訟獄之聲, 眞可以處子弟也, 今日將修掃而移牀褥矣.”

48) 『다산시문집』 1, 『讀書東林寺』

49) 茶山은 산수공간에서 독서를 하며 심성을 수양하였다. 유가의 도학을 지향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앞서 논의한 알인옥존천리를 통해 천인합일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한 것이다.

소리를 내어 스스로 경계하고자 했다.

특히 伴鶴亭은 정자에 귀신이 사는 소문으로 폐허가 된 곳이었다. 하지만 茶山은 책을 보는 데만 몰두하였고 늘 밝은 달이 물에 비쳐 그윽한 달빛이 문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즐거워하였으며 나무 그림자가 너울너울 움직이며 꽃향기가 코를 찌르는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긴장과 이완의 습합을 통해 최고의 풍류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茶山은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與],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猶].”의 老子의 말에서 ‘與猶堂’이라는 자호를 짓는다.⁵⁰⁾ 즉, 1800년 정조 24년 39세에 혼란한 정국을 느껴 고향인 洙水가로 돌아가 형제들과 같이 날마다 경전을 講하고 그 堂을 ‘與猶’라는 편액을 달아 학문에 정진하였다.⁵¹⁾ 茶山은 긴수작과 한수작의 풍류를 동시에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천지 사이에 무슨 소리가 제일 맑을까?	天地何聲第一清
눈 덮인 산 깊은 곳에 글 읽는 소리일세.	雪山深處讀書聲
선관이 패옥 차고 구름 끝을 거니는 듯,	仙官玉佩雲端步
천녀가 달빛 아래서 거문고를 통기는 듯.	帝女瑤絃月下鳴
인가에 잠시도 끊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	不可人家容暫絕
응당 세도와 더불어 서로 이루어.	故應世道與相成
북쪽 산 오막살이가 그 누구의 집 인고,	北嶠甕牖云誰屋
나무꾼도 돌아가길 잊고 정을 보낼 줄 아네.	樵客忘歸解送情 ⁵²⁾

위의 시는 『松坡酬酢』의 첫 번째 시, 「산 북쪽의 글 읽는 소리에 대하여

50) 『與猶堂全書』 13, 「與猶堂記」, “余觀老子之言曰, 與兮若冬涉川, 猶兮若畏四鄰, 嗟乎, 之二語.”

51) 茶山은 이 해에 「文獻備考刊誤」가 완성된다.

52) 『다산시문집』 6, 「賦得山北讀書聲」.

것다』이다. 茶山은 눈 덮인 깊은 산에서 글 읽는 소리가 천지 사이의 가장 맑은 소리라고 했다. 茶山이 생각한 최고의 풍류는 山水之間에서 독서를 하며 소요하는 즐거움이었다.

『松坡酬酢』의 두 번째 시에서도 “알건대 황종성이 반청성으로 변한 것이, 바로 겨울 산 석양 아래 글 읽는 소리일새, 주나라 시가는 고저음으로 굴러 나오고, 대자연의 소리는 한 구멍에서 나오도다.”⁵³⁾라고 하여 경전을 읽는 소리와 대자연의 소리에 경탄하였다. 여기서도 긴수작과 한수작의 습합이 이뤄져 풍류의 최고 경지, 천인합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茶山은 『당숙부의 옥천 산중 집을 찾아가다』에서 “서가 위에 일천 권 서책이면 그뿐이니, 상림원 군이 빌려 갓들일 게 뭐 있으리.”⁵⁴⁾라고 하였다. 그는 秦·漢의 長安에 있었던 황제의 정원, 상림원에서의 벼슬살이 하는 것보다 버드나무와 야생초가 가득 핀 山水之間에 초가집을 짓고 은일하여 수많은 책을 읽으며 풍류를 즐기는 게 낫다고 한 것이다.

茶山은 愚潭의 道東祠를 참배하며 당파의 정쟁이 일어날 때 은일하여 독서한 우담을 山林第一人⁵⁵⁾이라고 칭송하였다. 茶山은 선유를 하면서도 『사월 십오일에 백씨를 모시고 고기잡이하는 집의 조그마한 배를 타고 충주로 향해 가면서 전기의 강행 절구시를 본받아 짓다』⁵⁶⁾를 통해 원주에 은거하여 독서한 우담을 추모하고 존경하였다. 茶山은 귀양길에 오르는 紀行을 살펴보다도 ‘책 보파리 꾸러 묶어 힘없이 성곽 나서네.’⁵⁷⁾라고 긴수작과 한수작이 습합⁵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3) 『다산시문집』 6, 『松坡酬酢』, 「二」, “領得黃鐘變半清, 寒山落日讀書聲, 周歌曲折雙喉轉, 天籟刁調一竅鳴.”

54) 『다산시문집』 2, 『訪堂叔父玉泉山居』, “但教庋得書千卷, 棲息何須借上林.”

55) 『다산시문집』 2, 『謁道東祠』 참조.

56) 『다산시문집』 7, 『四月十五日陪伯氏乘漁家小艫向忠州 效錢起江行絕句』 참조.

57) 『다산시문집』 1, 『奉旨謫海美 出都門作』, “裝束書囊出郭遲.”

풍류는 일반적으로 한수작을 말한다. 긴수작의 위기지학 학문 활동에 정서적 안정과 여유를 가지고자 한수작의 풍류가 형성된다. 하지만 茶山의 경우는 긴수작과 한수작의 습합이 적절하게 이뤄졌다. 여러 사찰에서 독서를 하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그러한 것이다. 그가 山水之間에서 글 읽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맑고 높은 경지의 소리라고 칭했던 점을 보더라도 긴수작과 한수작의 습합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의 천인합일을 위한 노력은 일상화, 생활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V. 서정의 시적형상화와 현실인식 및 비판

고전산문은 일반적으로 사실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 특히 ‘記’의 형식은 이러한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지만 茶山의 산문에는 서정적 정서가 농후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서정적 정서는 詩로 승화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遊覽 및 紀行⁵⁹⁾의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茶

58) 귀양길은 즐거운 유람 및 기행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긴수작을 함께 실친, 영위하고 있어 긴장과 이완이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룬다. 긴장과 이완의 조화 및 습합에 관해서는 김종구의 『안덕문의 산수유람에 나타난 존현의식과 풍류 -『동유록』과 기행시를 중심으로 -』(『南冥學研究論叢』 21, 남명학연구원, 2016, p.262.)을 참조 바람.

59) 다산이 유람 및 기행을 하고 남긴 시는 다음과 같다. 앞서 선유와 유산, 사찰 등과 달리 둘 이상의 공통적인 분모가 있을 경우의 유람문화와 정확한 지점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의 유람문화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紀行絕句』·『春日過崔氏溪上草堂』·『行次興元倉陪韓監察 光傳 丈夜話』·『過族父承旨公 範祖 法泉山居』·『宿荷潭』·『悲西原』·『行次公州逢李丈偕行』·『過全州』·『次潭陽陪李都護 寅燮 丈飲』·『過景陽池』·『行次鹽巖』·『燕岐途中作』·『還茗川居』·『入漢陽』·『夏日還茗川』·『大駕幸英陵 還至南漢城 閱武放火箭火砲 恭述所

山은 이러한 서정성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비판을 행하여 시로써 풍류의 결과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유람에 나타난 풍류를 통해 서정적 정서를 어떻게 시적형상화 하는지를 살펴보자.

마침내 우리는 다시 배에 올라 달을 맞으니, 오로지 만 길이나 되는 황금빛 줄기가 수면에 내려 쏘더니, 잠깐 돌아보는 동안에도 千態百狀으로 순간순간 광경이 바뀌었다. 수면이 움직일 때는 부서지는 모습이 구슬이 땅에 흩어지듯 하고, 조용할 때는 平滑하기가 우리가 빛을 내는 것과 같았다. 달을 잡고 물놀이 하는 등 서로 돌아보며 매우 즐거워했다.⁶⁰⁾

觀·「銅雀渡」·「尼岑道中」·「次長城」·「重過光州」·「春日領內赴晉州 將離和順 悵然有作」·「次同福縣」·「暮次光陽」·「豆卮津」·「訪朴氏芝潭別業」·「陪家君訪 朴徵士 孫慶 金谷幽居」·「訪族父進士公 載老 山居」·「陪家君赴開慶 觀外舅公鳥嶺 鍊兵」·「冬日領內赴京踰鳥嶺作」·「到荷潭」·「苦寒行」·「踰二婦嶺」·「陪家君還 茗川」·「夏日茗川雜詩」·「入漢陽」·「春日棣泉雜詩」·「過叔父齋居」·「次廣津」·「宿汀村」·「到荷潭」·「行次鎮川縣謁三從祖父 志德 官齋」·「次龍仁題從祖父蒲谷 新居」·「過刺村李先生舊宅」·「孟春歸自茗川」·「孟夏領妻子還茗川」·「巴塘行」·「陪家君還茗川」·「訪族父承旨法泉山居」·「次荷潭」·「到金灘奉別家君赴蔚山還 至嘉興宿」·「將赴蔚山晏發抵南漢城」·「次長湖院」·「踰鳥嶺」·「鷄林懷古」·「陪 家君至慶州 於州尹林公 濟遠 新樓夜宴」·「陪家君游銀海寺」·「踰竹嶺」·「丹陽絕句 五首」·「次慶安驛奉東舍兄」·「奉旨謫海美 出都門作」·「行次銅雀渡」·「暮次水原」·「泰安郡守柳獻可 誨 見訪 同至開心寺東臺眺望 一宿而別」·「還至德山 同知縣鄭公 厚祚 飲」·「溫泉志感」·「大駕至鍊戎臺閱武 觀馬上才有述」·「同蔡郎將赴晉州 至果 川道中作」·「踰八良嶺」·「陪家君行次星州」·「至中牟縣 家君赴鳳山書院 余與蔡郎 前行 奉詩爲別」·「踰秋風嶺」·「渡荊水」·「銅雀渡送別家君還晉州」·「過舟橋」·「沾 暇還家作」·「九月十八日陪仲氏與尹彝叔无咎李輝祖游北漢山城」·「歷僧伽寺」·「冬日赴 午嶺出東門作」·「奉旨廉察到積城村舍作」·「暮抵朔寧郡」·「游西池」·「重游西池」·「次 平澤縣」·「到金井驛」·「金井懷古」·「過方山李逸人 道溟」·「龍淵午憩」·「行次青陽縣」·「馬上戲吟」·「歇鷄田村舍」·「是日風日暄暢 晚與一客騎馬度錦溪 望西南 諸峯雪中森 秀 相顧甚樂也 至漁谷 訪蔡逸人而還」·「將赴忠州出國東門作」·「到舊廬述感」·「行 次藍子洲」·「宿紫眞浦」·「到荷潭」·「木溪訪金佐郎 商雨 不遇」·「離荷潭」·「藍子洲 打魚」·「次韻憩鉞鉞潭」·「渡頭口占以一篇分呈洌樵楊山」·「下剡溪」·「到莊舍」·「經 鼎坡」·「江村賞雪 懷申學士兄弟 走筆寄呈」

위의 글은 「월파정 야유기」이다. 1787년 茶山이 江亭에서 李基慶과 駢儷文 공부를 하다가 權永錫, 鄭弼東과 함께 月波亭에서 노닌 기록이다. 용산에서 물결을 거슬러 동작나루와 파릉 입구를 완상하고 月波亭에 도착하여 火酒를 마시며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다 배를 타고 달을 맞이하는 장면이다.

茶山은 수면에 비친 달빛을 황금빛 구슬이 흩어진 듯 평활하기가 유리가 빛을 내는 듯 묘사하고 있다. 同遊가 詩會를 열자고 하였지만 茶山은 月波亭의 그윽한 정서를 느끼며 山水와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 훗날 茶山은 우리나라 월파정 세 곳 모두를 가보고 「월파정에 올라」, 「여러 벗과 함께 배를 타고 월파정에 이르러 밤에 뱃놀이를 하다」, 「황주 월파루기」의 작품을 남긴다.

(가) 사라담 가에 물새가 노니는 바위는,	鈔鑼潭上鷺鷥巖
연한 녹색 짙은 홍색이 물속에 잠겼어라.	軟綠深紅水底涵
그 옛날 달밤에 피리 불던 곳 찾아가 보니,	思就月中吹笛處
제비집이 예전대로 텃집 암자에 붙어 있네.	鵲巢依樣著茅菴 ⁶¹⁾

(나) 삼월 소양강 강 위에 선 누각,	三月昭陽江上樓
누각 앞 풍경 노닐기에 좋아.	樓前形勝最堪游
땅 트이고 하늘 높으니 등각에 비길 만하고,	地迥天高擬膝閣
물 맑고 모래 희니 기주와도 같네.	渚清沙白似夔州
살구꽃 지고 복사꽃 시들어,	杏花已落桃花老
왕손 돌아오지 않으니 방초의 시름이네.	王孫未歸芳草愁

60) 『與猶堂全書』 13, 「月波亭夜游記」, “遂復登舟以候之, 但見萬丈金標, 條射水面, 轉眄之頃, 千態百狀, 盪漾流灑, 其動者破碎如珠璣之迸地, 其靜者平滑如玻瓈之布光, 捉月戲水, 相顧樂甚.”

61) 『與猶堂全書』 17, 「穿牛紀行」

술 깨어 기대어서 휘파람 길게 불제,	酒醒倚柱發長嘯
서산에 지는 해가 우두에 비치네.	西山落日射牛頭 ⁶²⁾

(가)는 『穿牛紀行』으로 59세에 1820년 3월에 遊覽을 하고 남긴 기록이고 (나)는 『汕行日記』로 62세에 1823년 4월에 遊覽을 하고 남긴 기록이다. 57세 가을에 유배에서 풀려 난지 몇 년 후의 일이었다. 『穿牛紀行』에는 7언 절구 25수, 和杜詩 12수, 잡체시 10수를 기록하고 있다. 『汕行日記』에는 茶山과 다른 작가의 詩 72수를 기록하고 있다.

위의 『穿牛紀行』은 茶山이 臨淸亭에서 노닐던 기억을 회상하며 다시 찾아가 詩로 남겼다. 그는 臨淸亭에서 달밤 피리 불며 山水의 정취에 동화되고자 했다. 하지만 지금은 臨淸亭이 박문수의 소유로 되어 있어 서정적 정서를 마음껏 누리기엔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위의 『汕行日記』는 金尙憲의 詩이다. 金尙憲의 詩는 뒷날 가장 많은 차운을 남긴 작품이다. 金尙憲은 소양정을 중국의 등왕각에 견주었고 우두별을 기주에 견주었다. 한편 金昌翁의 詩도 인용하여 山水遊覽을 서정적 정서로 발현하였다.

마침 경주[鷄林]에 사는客으로 가야금을 들고 지나가는 이가 있어 그에게 술을 주고 가야금을 타라고 하였더니, 그 사람이 스스로 노래 부르고 가야금으로 和答을 하는데, 고운 음악 소리가 마음을 즐겁게 했다. 이 또한 하나의 기이한 것이다.⁶³⁾

위의 글은 『南湖汎舟記』이다. 남호는 울산의 호수이다. 1789년 가을에 울산에 계신 아버지께 인사 차 갔을 때, 마침 中秋의 밝은 달밤을 맞아

62) 『與猶堂全書』 12, 『汕行日記』

63) 『與猶堂全書』 14, 『南湖汎舟記』, “適有雞林客持伽倻琴過者, 與之酒使鼓琴, 其人乃自歌自琴以和之, 靡曼可悅, 又一奇也.”

몇몇 객과 더불어 배를 띄우고 남호에서 노닐 기록이다. 다소 알려지지 않은 남호였지만 중추의 밝은 달밤의 정서를 만끽하기엔 충분하였다. 게다가 객의 가야금 소리와 노래 소리가 어울려 남호에서 中秋의 달밤 뱃놀이의 서정적 정서를 농후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茶山의 기문에서는 서정적 정서가 잘 드러나고 있다. 그가 수많은 한시를 남길 수 있게 한 배경은 유람 및 기행에 대한 기록과 그 서정적 정서를 그때마다 시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한시뿐만 아니라 서정적 정서를 記文의 형태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서정적 정서는 시 창작의 기본 도구이며 山水와 조화되고 나아가 물아일체가 되는 중요한 정서인 것이다.

조선조 문인들은 풍광이 좋은 자연을 선택하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詩會를 열고, 그 모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畫軸이나 詩軸 등을 남기기도 했다.⁶⁴⁾ 茶山도 同人과 遊覽 및 기행, 船遊 등을 하며 詩會를 열기도 하고 여러 편의 詩軸을 남긴다.

茶山이 여러 편의 詩軸을 남길 수 있었던 원인을 記文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文藝創作을 위해 遊覽을 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 그의 文藝創作 공간은 주로 樓·亭·배·山寺 등이었지만 遊覽 및 기행이 이뤄지는 모든 공간에서 문예창작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유람 및 기행을 통해 풍류를 즐기고 그 서정적 정서를 시적형상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64) 정우락, 『朝鮮中期 江岸地域의 文學活動과 그 性格』, 『한국학논집』 40, 한국학연구원, 2010, p.217.

경진년 삼월 이십사일에 백씨를 모시고 순아의 納采 행사를 영술하여, 작은 배를 타고 汕水를 거슬러 올라가 춘천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지난해 충주를 갈 적에는 오언시를 지어 기행을 하되 전기의 강행시 일백 절구 가운데 칠십오 수만을 본받아 짓고 말았으므로, 이번에는 칠언시 이십오 수를 지어 그 부족분을 채우고, 또 잡체시 몇 수를 지어 함께 한 권을 만들었다.⁶⁵⁾

위의 글은 『穿牛紀行』의 들어가는 부분이다. 茶山의 춘천 遊覽은 배를 타고 山水를 벗 삼아 詩를 짓고자 하는 목적으로 봐도 무방하다. 충주 遊覽과 춘천 遊覽을 통해 詩軸을 만들고자 한 동기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再游蠡石樓記』에서는 詩를 지어 노래를 부르게 하였고 『游洗劍亭記』에서는 同人과 서로를 배고 누워서 詩를 읊조리기도 하였다.

(다) 搢紳大夫들 중에 文學과 經術이 있는 자를 좋아하여 그들과 함께 즐긴다. 비록 온갖 樂器를 베풀어 놓고 노닌 적은 없으나, 음식을 내려 주고 즐거운 낮빛으로 대해 주어서 그 친근함이 마치 한 집안의父子 사이와 같았으며, 엄하고 강한 위풍을 짓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 신하들이 각기 말하고자 하는 것을 숨김없이 모두 아뢰니, 혹 백성들의 고통과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모두 환하게 들을 수 있으며, 經을 말하고 詩를 이야기하는 자도 疑懼하는 마음이 없어 그 질정하고 변석하는 데에 성실을 다할 수 있었다. 아, 이것이 이른바 군자의 도가 생장하고 소인의 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⁶⁶⁾

65) 『與猶堂全書』 7, 『穿牛紀行序』, “庚辰三月廿四日, 陪伯氏, 領淳兒委禽之行, 乘小牒溯汕水, 將向春川, 前年忠州之行, 作五言以紀之, 效錢起江行百絕句, 七十五首而止, 今作七言得二十五首以足之, 又得雜體若干首, 共爲一卷.”

66) 『與猶堂全書』 14, 『芙蓉亭侍宴記』, “顧獨於薦紳大夫之有文學經術者, 樂與之游讌, 雖未嘗以絲竹金石, 雜然文陳, 而賜之飲食, 賜之顏色, 雍容暇豫, 親親若家人父子, 不設嚴毅之容, 故諸臣者亦無不竭盡其所欲言, 或民生疾苦, 閭巷隱鬱, 咸得徹聰, 而談經說詩者, 亦罔有疑懼, 得盡其質辨之誠, 嗚呼, 此豈非所謂君子道長, 小人道消者邪.”

(라) 선경의 꽃나무 속에 못과 누대 트였는데,	上清花木闌池臺
비단 자리 금접시로 궁중 잔치 열리었네.	綺席金盤曲宴開
다행히 한미한 신 고관들과 함께 마셔,	微臣幸與長纓飲
작은 재주 무슨 수로 이 술잔을 보답할꼬	塵利何由報此杯 ⁶⁷⁾

(다)는 「芙蓉亭侍宴記」이다. 정조가 등극한지 19년 봄에 ‘賞花釣魚宴’을 베풀었다. 정조를 비롯해 大臣, 閣臣⁶⁸⁾ 10여인이 대궐의 丹楓亭·集春門·石渠閣·上林을 완상하며 芙蓉亭에 이르렀다. 부용정에서 낚싯대를 드리우고 잡은 고기를 놓아주었으며 그 후 뱃놀이를 하며 배 안에서 詩를 지었다. 그리고 茶山은 연회 참석의 감회를 기록하였고 (라)는 바로 茶山이 정조의 「內苑賞花」시를 화답한 「奉和聖製內苑賞花」이다.

宋의 胡邦衡이 明遠亭에서 왕을 모시고 연회를 하고 물러나와 「玉音問答」을 지어 군신이 서로 함께 하는 盛事를 서술하기도 하였다. 茶山 또한 그때의 연회의 성사를 기록하여 성덕을 드날리고자 하여 記文을 쓰고 詩를 남겼던 것이다. 茶山은 文學과 經術을 통해 군자의 도를 양성하고자 하였고 遊覽 및 기행의 서정적 정서를 시적형상화 했던 것이다. 풍류의 결정체를 文으로 승화한 것이다.

또한 「永保亭宴游記」에서는 節度使 柳心源과 太學生 申宗洙와 함께 가을 달밤을 맞아 고마호에 배를 띄웠다가 寒山寺 아래에 배를 대고 절의 누대에 올라, 노래하는 사람과 피리 부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游天真菴記」에서도 天真菴에서 술 한 잔에 詩 한 수를 읊으면서 나날을 보냈다. 그때에 지은 詩가 모두 20여 수나 되었다.

茶山은 山水에서 노닐고 완상하는 풍류를 향유하였다. 그리고 山水之

67) 『與猶堂全書』 2, 「奉和聖製內苑賞花」

68) 蔡濟恭·徐有隣·李晚秀·尹行恁 등이다.

樂을 통해 興이 나고 情이 알맞으면 詩를 짓고 記文을 남기며 文藝를 향유하였다. 山水之樂과 文事之樂은 구체적으로 강·산·寺·樓·亭·배 등 다양한 공간에서 그 서정적 정서, 情趣를 표현하여 풍류의 결정체를 완성하고 있었다.

(마) 산 속에 들어가자 초목은 이미 울창하였고, 여러 가지 꽃들이 한창 피어 있어서 꽃향기는 코를 찔렀으며, 온갖 새들이 서로 울어대는데 울음소리가 맑고 아름다웠다. 한편으로 길을 가면서 한편으로 새 소리를 듣고 서로 돌아보며 매우 즐거워하였다.⁶⁹⁾

(바) 언제나 朝會에서 물러 나와서는 巾을 젖혀 쓰고 난간을 따라 걷기도 하고, 혹은 달 아래서 술을 마시고 詩를 지으니, 고요한 山林과 園圃의 정취가 있어서 수레바퀴의 시끄러운 소음을 거의 잊어버렸다. 尹彝敍·李舟臣·韓溪甫·蔡邇叔·沈華五·尹无咎·李輝祖 등 여러 사람이 날마다 이곳에 들러 취하도록 마셨는데, 이것이 이른바 竹欄詩社라는 것이다.⁷⁰⁾

(마)는 『游天真菴記』이다. 茶山은 천진암의 풍류를 초목·꽃·새와 더불어 노닐며 즐기고 있었다. 천진암에서 냉이·고사리·두릅 등 산나물 56종을 먹으며 山水之間의 노닐을 즐기고 詩 20수 지어 그러한 풍류를 서정적 정서로 시적형상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는 『竹欄花木記』이다. 茶山이 시끄러운 명례방 집에 석류·매화·치자나무·山茶·金盞花·銀臺花·芭蕉·碧梧桐·蔓香·국화·芙蓉·

69) 『與猶堂全書』 14, 『游天真菴記』, “既入山, 草木蓊蔚, 山中雜花盛開, 芳聞酷烈, 而百鳥和鳴, 喉嚨清滑, 且行且聽, 相顧樂甚.”

70) 『與猶堂全書』 14, 『竹欄花木記』, “每朝退, 岸巾循欄而步, 或月下酹酒賦詩, 蕭然有山林園圃之趣, 而輪軸之鬧, 亦庶幾忘之, 尹彝敍李舟臣, 韓溪甫蔡邇叔, 沈華五尹无咎, 李輝祖諸人, 日相過酣飲, 茲所謂竹欄詩社者也.”

대나무 난간[竹欄] 등을 심고 완비하여 완상을 하며 벗과 함께 竹欄詩社를 하였다. 즉 시끄러운 집안, 세속에서도 산수의 풍류를 즐겼고 그 서정적 정서를 집안으로 끌어와 동류와 더불어 시적형상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못난 자제들이 父兄의 관직을 따라오게 되면 오로지 色과 음식에 빠져서 화장한 여자를 가까이하여 그 향내를 맡으며, 기름진 음식을 실컷 먹고 그 맛을 즐기는데, 이와 같은 자는 돼지에 지나지 않는다. 연못과 누각이 이루어졌으니, 너희들은 이곳에서 거처하여라. 내가 올 때에 두 수레에 책을 싣고 왔으니, 너희들이 시령에 올려놓아라. 顏米의 여러 書帖을 가지고 왔으니, 너희들은 臨書를 해보아라. 책에는 향기가 있으니 너희들은 그 향기를 맡고, 먹에는 맛이 있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맛보아라.”⁷¹⁾

위의 글은 『書香墨味閣記』이다. 茶山은 政堂이 이뤄지자 남은 돌과 나무, 웅덩이로 연못을 만들고 섬돌을 쌓아 누각을 지어 ‘書香墨味’라고 편액을 하였다. 여기에 두 子弟를 살게 하면서 산수의 풍류를 즐기되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기록인 것이다.

연못 주변에는 꽃나무를 많이 심어서 書香을 돕도록 하였으며, 벽에는 行書와 淡墨畫를 걸어 墨味를 돕도록 하였다. 두 수레의 책과 唐의 顏眞卿과 宋의 米芾의 文章과 書畫를 臨書하도록 하였다. 『書香墨味閣記』를 통해 茶山은 유람 및 기행의 풍류를 일상생활 속으로 가지고 와 문장과 함께 학문을 증진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다음으로 유람 및 기행에 나타난 풍류를 통해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였고 비판하였는지를 살펴보자.

71) 『與猶堂全書』 1, 『書香墨味閣記』, “不肖子弟, 隨父兄之官者, 唯色與食, 是溺是噴, 親近脂粉而嗅其香澤, 飫厭膏粱而玩其旨味, 如是者豕而已矣, 池閣旣成, 汝其居之, 我之來也, 載書二車, 汝其皮之, 携有顏米諸帖, 汝其臨之, 書之有香, 汝其嗅之, 墨之有味, 汝其玩之.”

“옳지 않소이다. 行部라는 것이 山水를 遊覽하자는 것입니까? 가람산 아래까지는 아직껏 고관의 행차가 이른 적이 없었는데, 올해 비로소 관찰사의 행차가 이곳에 이르게 하려면, 산을 뚫어 길을 내고 골짜기를 건너질러 다리를 놓아야 할 것이니, 백성을 수고롭게 하여 상관을 즐겁게 하는 것은 감히 할 수 없습니다.”⁷²⁾

위의 글은 자하담의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며 승경을 기록한 『紫霞潭汎舟記』이다. 茶山은 嵒嵐山 아래서 배를 타고 물결을 따라 내려가 摩訶灘에 이르러 멈춰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 후 觀察使 李公에게 이야기 하니 백성에게 부역을 지어 뱃길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茶山은 관찰사의 행차로 백성에게 수고를 끼칠 수 없음을 권고하고 있다. 관찰사의 불만을 장식하고자 茶山은 紫霞潭까지만 가는 것을 찬성하였다. 茶山은 풍류를 즐기고자 한 마음이 그 누구보다 앞서는 자이지만 백성을 곤핍하게는 하지 않았다. 그는 당대 관찰사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대숲 속에 단청한 누각이 있는데,	綵閣脩篁裏
버드나무 물가엔 붉은 놀잇배.	紅船臥柳邊
모래톱이 따스해 물오리 졸고,	沙暄容鴨睡
마름이 움직이자 고기 헤엄쳐.	藻動任魚穿
큰 읍이라 거두는 세금이 많아,	大邑饒租賦
부잣집엔 풍악을 즐겨 노는데.	豪家嗜管絃
술잔 따라 돌리는 나이 어린 기생,	傳觴有小妓
치맛자락 연달아 펄럭이누나.	裙帶自翩翩 ⁷³⁾

72) 『여유당전서』 14, 『紫霞潭汎舟記』, “余曰不然, 行部者將游歷山水者邪, 嵒嵐之下, 冠蓋未嘗到, 今年始開荒, 若巡車至此, 將鑿山通道, 架壑爲梁, 勞民力, 以悅上官, 不敢爲也.”

73) 『다산시문집』 1, 『登淳昌池閣』

위의 시는 「순창에서 못가의 누각에 올라」이다. 茶山은 유람을 하면서 풍류만 즐긴 것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 누각에 오르고 뱃놀이를 하고 음악 향유했지만 당대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茶山은 빈부의 격차가 심함과 유혹만 일삼는 놀이를 비판하였다.

茶山은 진천의 북촌을 지나며 “지난달 넘친 물에 제방이 무너져서, 가래쟁이 가지고 들사람들 고생하네.”⁷⁴⁾라고 하여 지난 홍수를 복구하는 백성들의 고초와 쓸쓸한 山水의 정경과 인적이 드문 마을을 묘사하면서 그 근심을 표출하였다. 이 시기에 大灘·迎竹·彈琴臺·金灘을 유람하고 기행시를 남긴다. 茶山은 유람의 풍류를 서정적으로 승화하기도 하지만 백성들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비판을 하였다.

茶山은 풍류를 통해 드러나는 서정적 정서를 시로 형상화하였다. 특히 서정적 정서는 記文에도 서술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시로 창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는 시회를 개창한 경우가 많았고 시회라 명명하지 않더라도 유람 및 기행의 정서를 시로 형상화하였다. 한수작의 풍류는 서정적 정서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茶山은 서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비판도 이뤄져 풍류의 결정체를 일궈내고 있었다.

VI. 결론

茶山은 “물은 바다로 돌아가서 통하지 않는 바가 없고, 산은 嶽을 宗으로 삼아서 또한 연하지 않는 것이 없다.”⁷⁵⁾라고 성호가 말한 산과 물을 통해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묘한 이치를 깨달아 文事를 일삼는 풍류를

74) 『다산시문집』 1, 「紀行絕句」, “前月潮多堤水破, 野人辛苦集鉏鋤.”

75) 이익, 『성호사설』 28, 「詩文門」, 「山水」

향유하였다.

茶山은 茶山學을 형성할 만큼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그는 조선후기의 대표 시인이기에 문학연구 또한 시문학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산문연구는 협소하게 이뤄졌고 그의 유람을 통해 본 풍류는 협소하다. 茶山은 유람을 하고 남긴 기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행시가 있지만 연구가 부족했다.

그의 山水遊覽은 어린 시절부터 父兄을 따라 다니며 자연스럽게 이뤄졌으며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가졌고 시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茶山은 다양한 유람문화를 향유하였고 이를 통해 풍류를 즐기곤 했다. 이러한 풍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舞沂之風을 통한 樂道가 이뤄지고 있었다. 공자가 생각한 최고의 풍류를 茶山은 좇아가고자 했다. 그리고 道學에 종사하며 道를 즐기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茶山이 유람을 통해 심성을 수양하였고 高士를 존송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둘째, 유람 및 기행을 통한 은일지향이 이뤄지고 있었다. 茶山은 그가 존경한 퇴계의 만년의 삶을 통해 은일하여 학문을 증진시키고자 했다. 隱逸之士의 삶이 실현되지 않았기에 더욱 隱士를 추모하고 그 풍류를 공유하고자 했다.

셋째, 緊酬酢과 閒酬酢의 습합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는 유람을 하며 풍류를 즐기고 있었지만 긴수작의 독서도 함께 실천하였다. 茶山の 긴수작과 한수작의 습합의 정점은 茶山이 山水之間에서 글 읽는 소리를 최고의 풍류로 칭송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서정의 시적형상화와 현실인식 및 비판이 이뤄지고 있었다. 한수작의 풍류는 서정적 정서가 많을 수밖에 없다. 茶山은 선유·유산·유람 및 기행 등을 통해 서정적 정서를 느끼고 시로 형상화하였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비판도 함께 이뤄져 풍류의 결정체를 완성하였다.

茶山 문학에 관한 남은 과제는 유람 및 기행을 하고 남긴 방대한 양의 기행시에 관한 연구이다. 본고는 풍류에 관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했지만 다양한 관점과 개개의 관점에서 기행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茶山의 풍류와 당대 및 전대의 풍류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특히 유배자·은일자·관료자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정약용, 『경세유표』
정약용, 『다산시문집』
정약용, 『여유당전서』
한국고전종합 DB

元陳澧撰, 『陳氏禮記集說』
이익, 『성호사설』
『고문진보』 후집
『논어』
『맹자』
『장자』

- 김중구, 「가야산 유산기에 나타난 작가의식과 유산문화의 유형」, 『어문론총』 59, 한국 문학언어학회, 2013.
- _____, 「안덕문의 산수유람에 나타난 존현의식과 풍류 -『동유록』과 기행시를 중심으로-」, 『南冥學研究論叢』 21, 남명학연구원, 2016.
- 김봉남, 「茶山 詩에 함축된 內面意識의 변모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박무영, 「정약용의 초기[仕宦期] 산문에 대하여」, 『다산학』 6, 다산학술문화재단, 2005.
- 박철완, 「다산『설』체 산문의 서술양상과 특징 고찰」, 『청람어문교육』 22, 청람어문학 회, 2000.
- 신은경, 丁若鏞의 「汕行日記」 연구, 『국어국문학』 153, 국어국문학회, 2009.
- 용환진, 「茶山の 春川紀行詩研究」, 『漢文古典研究』 22, 한국한문고전학회, 2011.
- 장진숙, 「茶山 贈言 산문의 특징과 그 교육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8, 한국고전 문학교육학회, 2009.
- 정우락, 「朝鮮中期 江岸地域의 文學活動과 그 性格」, 『한국학논집』 40, 한국학연구원, 2010.
- _____,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퇴계학논집』 1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

정일남, 「茶山 丁若鏞의 ‘屈騷’ 수용 양상」, 『韓國漢文學研究』 46, 한국한문학회, 2010.

하강진, 「다산 정약용의 시문학 공간으로서 찰州」, 『영주어문』 27, 영주어문학회, 2014.

심경호, 『다산과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5.

김영호·정우락 외, 『『논어』의 종합적 고찰』, 심산, 2003.

피터 버크 지음·조한욱 옮김, 『문화사란 무엇인가』, 길, 2005.

Abstract

Pung-ryu and Its Meaning, Seen in the
Sightseeing and Traveling of
Dasan Jeong, Yak-yong
- Focusing on the Writing and Travel Poetry -

Kim, Jong-gu

This study examines poetic appreciation called Pungryu and its meaning, seen in the sightseeing and traveling of Dasan Jeong, Yak-yong(茶山 丁若鏞, 1762~1836) through writing and travel Poetry. Dasan is a poet and scholar of the Realist School of Confucianism who represents the literary scholar of late Chosun Dynasty. Dasan formed the literary school of Dasan by achieving a deep and broad academic world that includes politics, economy, geography, literature, philosophy, medicine, education, military science, and natural science.

The formation of the literary school of Dasan is close to the philosophical arts in Pungryu. In this regard, the question about poetry and prose arts can be raised. The poetry and prose arts of Dasan's Pungryu include various types of excursion and travel culture such as tower, lecture hall, temple, boat ride, strolling, poetry association, mountain excursion, and feast.

Pungryu, shown in the writing and travel poetry of Dasan has some features as follows: First, Pungryu is to enjoy the cultivation of spirituality such as prayer for rain. Second, it aims at seclusion through sightseeing and traveling. Third, tense philosophical arts and relaxed poetry and prose arts are mixed. Fourth, it contains both the poetic embodiment of lyrics and criticism for the reality.

Key Word : Dasan Jeong, Yak-yong, Pungryu, Writing and travel poetry, Pleasure in the cultivation of spirit , Seclusion, Poetry and prose arts, Poetic embodiment

김종구

소속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piny0928@hanmail.net

이 논문은 2017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17년 5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6월 9일 게재 확정됨.
